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5.17

미 증시, 저가매수 심리와 자신감 부족으로 변동성 확대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중국의 소매판매 등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내놓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나스닥 중심으로 매물 출회. 그러나 예견된 지표 결과였기에 저가 매수 심리가 부각되며 오후 들어서는 저점에서 반등,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향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 재차 매물 출회되며 하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되며 마감(다우 +0.08%, 나스닥 -1.20%, S&P500 -0.39%, 러셀2000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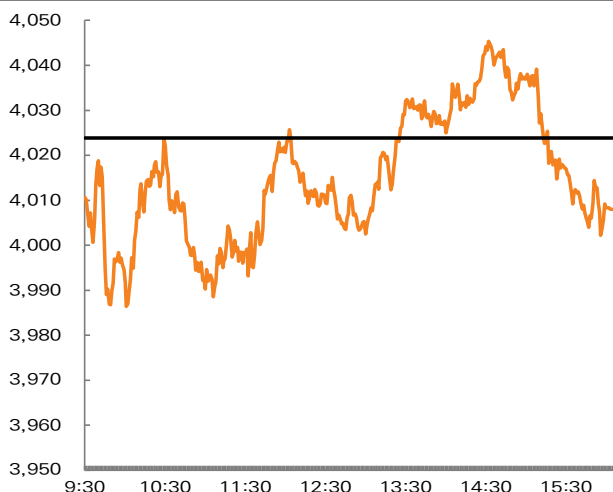
특이 종목

- 스피릿(+13.49%)은 제트블루(-6.06%)의 적대적 인수 돌입 소식에 급등. 스피릿은 프린티어(+5.85%)와 합병을 추진 중인데 제트블루가 뛰어든 상황이며 스피릿 인수 기업이 미국내 5위 항공사로 올라서게 되는 상황. 루나 재단이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암호화폐시장이 하락하자 테슬라(-5.88%), 엔비디아(-2.50%), 블록(-5.29%) 등이 하락. 리비안(-6.89%)은 포드(-3.33%)의 지분 매도에 아마존(-1.99%)향 납품이 분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15%,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0.8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1% 상승. KOSPI는 보험권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중국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슈 소회하며 최근 시장의 화두인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되며 장중에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여기에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들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전망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이는 한국 증시 장중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 후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증시 하락 불구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96.58	-0.29	상해종합	3,073.75	-0.34
KOSDAQ	856.25	+0.37	홍콩항셍	19,950.21	+0.26
DOW	32,223.42	+0.08	베트남	1,171.95	-0.91
NASDAQ	11,662.79	-1.20	유로스톡스 50	3,685.34	-0.49
S&P 500	4,008.01	-0.39	영국	7,464.80	+0.63
캐나다	20,206.41	+0.53	독일	13,964.38	-0.45
일본	26,547.05	+0.45	프랑스	6,347.77	-0.2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경기 침체 우려 ②암호화폐시장 자금 유입

중국의 4월 소매판매가 코로나 봉쇄로 전년 대비 11.1% 급감하고 산업생산도 2.9% 감소하자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음. 이는 최근 시장의 화두이기도 했기에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 중 하나. 여기에 뉴욕주 제조업지수의 급격한 둔화도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하이의 단계적 봉쇄 완화 소식 등이 전해지며 중국 경제지표 부진은 일시적이라는 점이 경기 침체 이슈 확대를 제한.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가 진행 될 것이라는 점도 영향. 실제 미국 장 후반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했으며 국제유가는 상승 전환했고. 주식시장도 에너지, 제약업종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하는 등 안정을 찾기도 했음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 실물 경제지표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으나, 과거와 달리 이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는 등 안정적인 모습. 시장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 없는 악재에 대한 반응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 또한 높지 않아 변동성 확대는 지속되며 장 마감 직전 재차 하락폭을 재차 확대하며 마감

지난 주 비트코인이 2만 6천 달러를 하회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주말을 지나며 재차 3만 1천 달러를 상회하는 등 안정을 찾아갔음. 그러나 테라 USD의 지원 재단이 지난 주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남은 자산을 활용한 사용자 보상 계획을 발표하자 재차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약세를 부추김

그러나 지난주와 달리 변화는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노무라 증권이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NFT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긍정적인 소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여기에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지난 주 2억 7,400만 달러가 디지털 자산 펀드로 유입되는 등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 이 소식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제한되자 관련 기업들의 하락 또한 장 중에는 제한되기도 했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암호화폐 기업 부진 Vs. 제약, 에너지 강세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13.49%)은 제트블루(-6.06%)의 적대적 인수 절차 돌입 소식에 급등. 스피릿은 프론티어(+5.85%)와 합병을 추진 중인데 제트블루가 뛰어든 상황이며 스피릿 인수 기업이 미국내 5위 항공사로 올라서게 되는 상황. 루나 재단이 테라를 지키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암호화폐시장이 하락하자 테슬라(-5.88%), 엔비디아(-2.50%), 블록(-5.29%) 등이 하락. 리비안(-6.89%)은 포드(-3.33%)의 지분 매도에 아마존(-1.99%)향 납품이 분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하락. 지분 보유중인 아마존도 하락. 니오(+1.68%)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은 4월 산업생산에서 자동차 생산 40%대 급감 불구 전기차 생산은 40%대 급증 소식에 강세

트위터(-8.18%)는 테슬라 CEO인 머스크가 트위터 법무팀과 고성인 오가는 마찰이 있었다는 소식에 인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지속. 반면, 일라이릴리(+2.66%)는 FDA가 당뇨병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강세. 최근 M&A 소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개별 기업 호재로 화이자(+1.50%), 머크(+2.11%) 등 제약주는 물론 유나이티드 헬스(+0.79%), CVS(+1.10%) 등도 동반 상승. 엑슨모빌(+2.35%), 코노코필립스(+2.98%) 등 에너지 업종은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이 지속되자 강세. 소비자 금융서비스 업체인 소파이(+2.37%)는 수익 모멘텀에 의해 약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소식에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28	대형 가치주 ETF (IVE)	+0.16
에너지섹터 ETF (OIH)	+3.61	중형 가치주 ETF (IWS)	-0.26
소매업체 ETF (XLY)	-2.16	소형 가치주 ETF (IWN)	+0.19
온라인소매 ETF (EBIZ)	-2.56	대형 성장주 ETF (VUG)	-1.31
금융섹터 ETF (XLF)	-0.84	중형 성장주 ETF (IWP)	-1.87
기술섹터 ETF (XLK)	-0.88	소형 성장주 ETF (IWO)	-1.2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78	배당주 ETF (DVY)	+0.57
클라우드 ETF (CLOU)	-3.66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56
미국 리츠 ETF (VNQ)	-0.63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78
주택건설업체 ETF (XHB)	-1.04	미국 국채 ETF (IEF)	+0.42
바이오섹터 ETF (IBB)	+0.13	하이일드 ETF (JNK)	-0.20
헬스케어 ETF (XLV)	+0.74	물가연동채 ETF (TIP)	+0.03
곡물 ETF (DBA)	+2.9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3
반도체 ETF (SMH)	-1.61	모멘텀 ETF (MTUM)	-1.2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628.31	+2.62	+8.65	+3.40
헬스케어	1,507.75	+0.69	+2.37	-6.69
필수소비재	805.64	+0.45	+0.70	-2.29
유틸리티	362.69	+0.33	-0.23	-6.16
산업재	784.94	-0.17	-0.38	-7.16
소재	516.83	-0.19	+0.59	-7.58
통신	198.63	-0.59	+1.73	-11.25
금융	551.98	-0.78	-1.92	-10.01
부동산	267.38	-0.80	-0.02	-12.36
IT	2,353.70	-0.91	-0.46	-8.59
경기소비재	1,162.17	-2.12	-1.25	-17.3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견고한 모습 속 중국 증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15%,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80.9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1% 상승. KOSPI는 보합권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 증시 급등에 힘입어 1% 넘게 상승 출발했으나,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결과를 내놓자 하락 전환. 특히 이로 인해 중국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된 점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을 부추김. 물론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에 대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이 주식시장 하락 요인 중 하나. 다만, 외국인의 현물 매매는 제한돼 하락은 제한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중국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슈 소화하며 최근 시장의 화두인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되며 장중에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은 우호적

여기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급격하게 위축되기는 했으나,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의 봉쇄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 특히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들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전망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이는 한국 증시 장중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

미국 5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24.6)는 물론 예상(15.0)을 크게 하회한 -11.6으로 발표. ISM 제조업지수와 유사한 방법론을 채택하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중요한 지표인데 신규주문이 25.1에서 -8.8로 급감했으며 출하지수도 34.5에서 -15.4로 위축. 배송시간지수는 21.8에서 20.2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고용지수는 7.3에서 14.0으로 상승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WTI, 가솔린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으로 상승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미국 가솔린 가격이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EU의 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제재가 조만간 합의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전환. 여기에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킨 상하이 봉쇄 등이 서서히 완화 될 것이라는 점도 장 후반 상승 확대 요인 중 하나

달러화는 장 초반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미국 경제지표 둔화 및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약세 전환. 특히 중국발 경기 침체 이슈가 시간이 지나며 완화된 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추정.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는 제한적인 움직임 속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캐나다 달러 등 일부 상품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중국 실물 경제지표 부진에 이어 뉴욕주 제조업 지표 둔화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음. 그러나 오후 들어 관련 우려가 완화되자 하락이 축소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임. 한편, 장 초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6월 50bp 금리인상을 주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상당히 완화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하락 요인. 다만, 인플레이를 막기 위해 신속한 금리인상을 언급해 영향은 제한

금은 달러화 약세 전환으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지표 둔화 불구 달러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 전환에 힘입어 강세. 곡물은 인도가 곡물 수출을 금지하자 본격적인 식량 수급 불안 요인이 부각되며 급등. 더불어 옥수수 파종이 예상처럼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 가뭄으로 파종 면적 인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영향.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13%, 철근은 0.45%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4.20	+3.36	+10.78	Dollar Index	104.245	-0.30	+0.57
브렌트유	114.24	+2.41	+7.83	EUR/USD	1.0434	+0.21	-1.20
천연가스	8.06	+5.14	+14.67	USD/JPY	129.09	-0.10	-0.92
금	1,814.00	+0.32	-2.40	GBP/USD	1.2324	+0.51	-0.06
은	21.55	+2.62	-1.23	USD/CHF	1.0021	+0.09	+0.83
알루미늄	2,832.00	+1.58	+2.79	AUD/USD	0.6969	+0.42	+0.24
전기동	9,238.50	+0.87	+0.01	USD/CAD	1.2855	-0.57	-1.20
아연	3,563.50	+2.12	-1.42	USD/RUB	64.3424	-0.56	-7.39
옥수수	809.50	+3.62	+4.86	USD/BRL	5.0572	-0.08	-2.01
밀	1,247.50	+5.94	+14.16	USD/CNH	6.7960	-0.06	+0.58
대두	1,656.50	+0.61	+4.49	USD/KRW	1,284.10	-0.01	+0.79
커피	224.80	+5.10	+9.07	USD/KRW NDF1M	1,280.99	+0.18	+0.4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82	-3.63	-15.16	스페인	1.995	-0.40	-21.70
한국	3.267	+3.70	-15.30	포르투갈	2.047	-0.90	-19.70
일본	0.247	+0.10	-0.10	그리스	3.517	+4.60	-9.20
독일	0.937	-1.10	-15.80	이탈리아	2.840	-0.90	-30.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